

放課後 兒童教室에 對한 意見調查

— 濟州道를 中心으로 —

金 成 奉*

목 차

I. 序 論	IV. 研究結果 및 解析
II. 理論的 背景	V. 綜合 考察
III. 研究方法 및 節次	參考文獻

I. 序 論

우리 아이들이 제일 행복해 하는 순간은 언제일까? 공부할 때일까? 놀 때일까? 아니면 다른 어떤 때일까? 이러한 질문들 속에 우리의 학교교육의 존재 이유가 있다. 지금 우리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행복한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코흘리개 아이들은 소위 '학습 스트레스'에 의한 원형탈모증에 고생하고 있다. 많은 아이들이 학교와 관련한 죽음을 선택하고 있다. 성적을 비관해서, 선생님이 무서워서, 친구가 두려워서 그렇게 하고 있다. 학교라는 체제가 그들에게 적어도 고통을 안겨 줘서는 안될 기본적인 책무를 지닌다고 한다면, 지금의 우리의 학교교육은 문제가 있다.

최근에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는 것은 이러한 학교교육에 대한 비판적 작용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지금의 학교교육은 학생들에게 지식을 주입시키기에 바쁘다. 요즘 「열린교육」이니 해서 그러한 주지주의적 학습 풍토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하나, 학력이 절대적으로 중시되는 우리의 사회적 풍토 속에서 여전히 학교 교실은 학습과 관련한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은 바로

* 제주전문대학 보육교사교육원 전임교수

이러한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인지적 활동 외의 다양한 정서적·사회적 경험을 아이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보다 행복한 아이들로 만들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대부분의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은 학교교육과 분명한 차별성을 갖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이 하나의 독자성을 갖는 유의미한 활동이 아니라, 단순히 장소를 달리한 학교교육의 연장이나 과외 교육으로, 학교교육 중에서도 특히 학업 면의 보충이나 보조 역할을 주된 임무로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서영숙, 1996 : pp.206~7). 다시 말해 숙제지도와 학습지도에 치중하고 있고, 정서적·사회적 발달을 돕기 위한 활동은 미약한 실정이다.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은 학교교육을 보충하고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연계성을 지녀야 함과 동시에 학교교육과는 분명한 차별성을 지녀야 한다. 학교교육이 주로 아동들의 인지적 기능에 초점을 둔다면, 방과후 프로그램은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전자가 형식적인 학습을 제공한다면, 후자는 아동의 개별적인 요구와 관련한 정의적, 탐구적 학습을 위한 비형식적인 학습이어야 한다(한국여성개발원, 1996). 아동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돌아온 후 가정에서 긴장을 풀고 편안히 휴식을 취하면서 숙제나 그 밖의 활동을 하듯이,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에서도 이러한 기능은 어떤 프로그램에서나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김영진, 1996 : p.221). 학교에서의 학령기 아동의 일과가 대부분 너무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방과후 프로그램에서는 구조화되지 않은 활동시간도 계획함으로써 긴장을 풀어 주려 노력해야 한다(서영숙, 1996 : p.161). 서구 사회에서 보육 서비스 및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의 바탕 철학은 “구조화된 환경 속에서의 자유”(freedom within structure)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Kahn & Kamerman, 1976 ; 김정자, 1996 : p.8에서 재인용).

그런데 제주도의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 실태를 조사한 유홍욱 외(1997)에 의하면, 도내에도 취업모가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과후 아동지도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설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한다. 또한 도내의 방과후 프로그램 대부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제주도내 방과후 아동지도에 대한 인식의 확산을 위해서 문헌연구를 통한 방과후 아동지도의 필요성을 고찰하는 것이다. 둘째, 방과후 아동교실에 대한 아동,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 조사를 통해 제주도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있다.

II. 理論的 背景

1. 방과후 아동지도의 개념과 유형

방과후 아동지도(보육)는 학교 정규수업활동 외에 이루어지는 각종 프로그램으로 보는 광의의 개념과, 학교수업이 없을 때 어른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학령기 아동을 허가 받은 정규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돌보아 주는 협의의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서영숙, 1996) 광의의 개념으로 볼 때 방과후 아동지도는 반드시 기관이나 시설에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아동이 자율적·통제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이 모두 방과후 보육 서비스의 유형에 포함할 수 있다. 가령 학교에서 방과후에 원하는 아동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특별활동이나 스카우트 활동을 들 수도 있고, 학교 밖에서 주로 열리는 각종 캠프나 지역사회 학교, 취미클럽 활동, 학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학령기 아동이 방과후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반면에 협의의 개념에서의 방과후 아동보육은 일정한 시설(초등학교, 사회복지관, 종교기관, 기타 지역사회 시설, 국·공립 및 민간 보육시설 등)에서의 집단적 보육에 국한되어 정의되고 있다. 한국여성개발원(1994)에서는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을 초등학생(6~12세)을 주 대상으로 하여 학교 시작 전과 끝난 후 혹은 휴일이나 방학 기간 중에 일정 시설에서 아동을 보호·교육하는 활동'으로 정의한 바 있다.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면, 방과후에 자녀가 겪는 생활 경험 전체가 방과후 보육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각종 시설에서의 방과후 보육이 아니더라도 부모들은 방과후에 자녀를 돌보는 방식을 나름대로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광의의 방과후 보육개념을 적용한다면, 매우 다양한 방과후 보육 유형이 있을 수 있다. Todd 등(1990)은 방과후 자녀가 겪는 생활 경험 전체를 광의의 방과후 보육 개념으로 정의하고, 부모가 자녀의 생활경험을 통제하는 범위에 따라 다음의 4가지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다(유홍옥 외, 1997 : p.4에서 재인용).

첫째, 성인의 책임 하에 직접 보호·교육하는 경우로, 친인척 보호, 가정보육, 방과후 시설 보육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둘째, 일정기간만 성인의 감독 하에 보육하는 경우로 단기 레저 프로그램, 학원이나 과외활동, 청소년 단체활동 등이 여기에 속하며, 셋째, 원거리 감독을 하는 경우로, 부모 감독 하의 자기보호, 이웃 주민이 아동의 행방을 확인·감독하는 Check-in Program 등이 있다. 그리고 넷째는 감독 부재인 경우로, 아동 자신이 안전에 관한 기술을 훈련받아 스스로 자기보호를 할 수 있는 자기보호와 아동이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정서적 지원을 받고자 할 때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전화협조선 등을 들고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1> 학령기 아동의 방과후 보육 유형

성인의 개입 정도	보 육 유 형
1. 성인의 책임 하의 방과 후 직접 보육	친·인척 보호, 가정보육, 방과후 시설보호
2. 방과후 일부 시간만 성인의 직접 보육	단기 레저프로그램, 과외교습, 청소년 단체활동
3. 성인의 원거리 감독	부모 원거리 감독하의 자기보호, Check-in 프로그램
4. 성인 감독부재	자기보호(Self-care), 전화협조선(Help-line)

(이옥 외, 1997:11)

2. 방과후 아동지도의 필요성

방과후 아동지도의 필요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겠으나, 아동의 발달심리학적 요구, 아동의 복지권과 교육권, 그리고 사회적 요구와 관련해 논의하겠다. 아동의 발달심리학적 요구는 1) 신체발달, 2) 사회성 발달, 3) 정서발달, 4) 인지발달로 나누어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요구는 1) 취업모의 증가와 자기보호 아동의 문제, 2) 현대 가족 구조의 변화와 공동체 문화형성의 중요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 볼 것이다.

2-1. 방과후 아동지도에 대한 발달심리학적 요구

2-1-1. 신체발달

학령기 아동의 신체 발달은 영유아기나 청년기에 비해 비교적 느리게 진행되지만, 영구치가 나고, 대·소근육의 조절과 협응능력이 급격히 향상된다. 또한 이 시기의 운동기능은 유아기에 비해 속도, 정확성, 안정성, 호응성, 역량 등이 더욱 발달하고 교묘해진다. 즉 이 시기는 유아기에 배운 운동기능을 더욱 완성시키면서 새로운 기능을 습득해 가는 실행기이다. 그러나 저학년의 경우에는 여전히 과제수행이 서투르기 때문에 뛰어가다 물체에 부딪치고, 뒤집어엎고, 걸려 넘어지기도 한다. 또한 이 시기의 아동은 신체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활동을 좋아해 신체적 기술을 닦기 위해 다양한 놀이와 운동을 즐겨 한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들은 모험심과 위험한 장난으로 이어질 경우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된다.

학령기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함은 영·유아기 아동 못지 않게 필요한 일이다. 특히 특별히 돌보아 줄 성인이 없는 맞벌이 가정의 아동들은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들에게 안전교육과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야말로 방과후 아동보육의 가장 큰 목적이 되는 것이다(이옥 외, 1997 : p.39).

또한 아동은 이 시기에 일생을 통해 활동하게 될 모든 기초를 다 습득하게 되는데, 기초적인 운동기능의 발달은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한국여성개발원, 1996 : p.22). 활발히 뛰놀아야 할 이 시기에 혼자서 집안에 틀어박혀 TV를 시청하거나, 전자오락을 즐겨야 하는 아이들로부터는 긍정적인 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어린이에게 또래 집단과의 활발한 운동기회를 안전한 환경속에서 체계적 계획에 따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1-2. 사회성 발달

이 시기의 아동의 사회적 환경은 가정과 이웃에서부터 학교 특히 학급으로 확대된다. 아동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그들의 사회적 환경에 변화를 갖게 된다. 즉, 자기중심성을 점차적으로 탈피하여 행동이 사회화되어 가고, 그들의 관심, 또한 주관적 세계에서 객관적 세계로 옮겨가고, 개인주의 시기에서 집단행동의 시기로 변화한다.

대부분 저학년에 있어서는 개인주의적 특성이 남아 있어서 사회적 관계에 미숙하고 생활 전반에 걸쳐서 성인에 의존하는 경향이 남아 있다. 그러므로 교우관계는 아직 약하고 자기가 소속하고 있는 집단에 대한 의식도 충분하게 발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3학년부 터는 학교생활에 익숙해지고 학우 상호간에 정신적 교류가 형성되어 공동의식, 소속의식으로부터 오는 이른바 우리 의식(we-consciousness)이 발달하여 교우관계를 리더를 중심으로 하여 집단을 형성한다. 이 집단을 도당이라고 하며, 9~12세까지의 시기를 도당시기(gang age)라고 부른다. 이때 사회적 의식이 급속도로 발달하게 된다. 아동은 도당활동을 통해서 사회화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태도와 자질을 학습한다. 다시 말해, 또래들과의 집단생활을 통해서 자기표현의 욕구와 사회적 승인감을 만족시키며, 이기적인 태도를 버릴 줄 알게 되고, 용감성·인내성·정의감·준법성·협동성 등의 바람직한 사회적 의식이 싹트게 되는 것이다(한국여성개발원, 1996 : pp.31-32).

그러나 교우관계나 또래집단 속에서의 즐거움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아동들은 심한 좌절감과 소외감에 빠지게 된다. 방과후 아동보육은 자칫 고립되어 자랄 수 있는 아동들에게 긍정적인 교우관계를 맺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아동 개인의 정서적 문제를 파악할 수 있기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성인들은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집단놀이와 공동활동 등을 제공하고, 그 속에서 고립아나 비인기아들의 정서적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건전한 교우관계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2-1-3. 정서발달

정서란 외부 자극에 대하여 동요·흥분될 때 경험하는 심리상태나 감동으로서, 포괄적인 정신·신체적(psychosomatic) 상태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정서는 외부의 자극에 대한 의식적·무의식적 반응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이 자신의 정서를 표현한다는 것은 현재의 느낌, 욕구, 바람 등에 대해 이야기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서표현으로 사회적 거리를 조절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아동이 웃으며 긍정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가까이’ 다가오라는 표시이고, 불만이나 노여움을 표현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멀리’ 물러서라는 것을 의미한다(서영숙 외, 1997 : p.27).

그런데 아동은 성장해 감에 따라 어떤 정서적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그의 성격발달은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이를테면, 폭력적인 상황에 많이 노출된 아동은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게 되며, 주변 인물들로부터 꾸지람이나 편잔을 많이 듣게 되면 부정적 자아개념과 반사회적, 자학적 성격의 소유자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따뜻하고 친근한 인적, 물적, 사회적 환경이 요구된다. 전문가족상담가들은 건전한 인격형성을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일(학업)과 놀이와 인간관계를 균형있게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레크레이션 활동은 협동적이며, 민주적이고 명랑한 성격과 낙천적 성격에 기여한다. 또한 인간관계에서 내향성을 나타내는 성격 가진 사람에게 인간 접촉의 쾌감을 느끼게 하는 역할까지도 한다(김광득, 1990). 방과후 아동보육은 구체적인 레크레이션 활동 경험을 통하여 아동들의 놀이욕구에 부응하여 건전한 여가생활 기술을 지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2-1-4. 인지발달

인지발달이란 아동의 정신적인 면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의미한다. 학령기 아동의 인지발달은 아동의 다른 측면의 발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 시기의 아동은 Piaget의 인지발달단계 중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아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아 새로운 것을 익히기 위해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 보았던 것, 경험했던 것과의 관계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에서는 구체적인 예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서영숙 외, 1997 : p.28). 또한 이시기는 Erickson의 심리사회발달 중 근면성 발달기에 해당된다. 그에 의하면, 건강하게 성장하는

학령기 아동들은 기본적으로 호기심이 많고, 학업에 있어서도 근면성을 발휘하는 아동들이다.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속에서 어린이들은 이러한 지적 근면성을 나타내며 지적 호기심을 충족한다. 그러나 이 시기의 지적 근면성이 모든 어린이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잠재적으로 지적 근면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초등학교 교과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도가 필요한 어린이들이 많은 것이다. 어린이들이 학교에서의 교과과정을 이해하지 못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어린이의 지적 근면성은 열등감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방과후 아동보육은 아동들이 주요한 발달 과제인 '학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자율적인 학업분위기를 조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학습 지도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초등학교 시기에 기본적인 지적 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이를 확인해 주는 일은 어느 시기보다 중요한 일인 것이다.

2-2. 아동의 복지권과 교육권

2-2-1. 아동의 복지권

아동의 복지권이란 아동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며, 건전하게 양육될 권리를 말한다. 아동도 국민의 한사람이므로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주체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아동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아동의 복지권은 어른의 그것에 비하여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6조에 의하면, 아동의 복지권은 생존권뿐만 아니라 발달권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박균성, 1993).

국제협약 제6조는 '① 모든 아동이 고유의 생명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② 가능한 최대 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설정하고 있으며, 아동을 보호하는 제1차적 책임과 권리를 국가가 아닌 부모에게 부여하고,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아동도 어른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도 모든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법의 명칭에서 볼 때 아동복지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보여지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요보호 아동의 양육에 관한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18세 미만자)의 보호 및 지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조 -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 ① 모든 국민은 아동을 보호·양육하고, 사회생활에 적응되도록 육성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할 책임을 진다.

제10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공원, 어린이 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 전시시설 등 아동 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방과후 아동지도시설이 제10조에서 명기되어야 하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방과후 아동지도시설'에 관한 설명이 제시되도록 하여, 방과후 아동지도가 아동복지의 일환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한국여성개발원, 1996 : pp.13~15).

2-2-2. 아동의 교육권

헌법의 교육조항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아동의 교육권은 교사, 부모 또는 친권자, 국가, 설치자 등 교육활동의 모든 주체들 보다 우선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즉, 아동의 교육권을 정점이나 핵심으로 하고, 다른 주체의 교육권은 보조·지원하는 하위의 체제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안기성, 1994).

교육에 관한 모든 권리는 근원적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 시작되며,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는 제교육권의 중핵적인 위치에 있다. 아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생태적 기본권으로서의 인간적 성장발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강인성, 1993).

1948년 국제연합총회의 세계인권선언은 '누구든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초등교육은 무상이고 의무이다'고 선언하였고, 1959년의 국제연합총회의 아동권리선언에서도 '아동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아동의 교육 및 지도에 책임지는 자는 아동의 최선 이익을 지도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1989년 국제연합총회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도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당사국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교육받을 권리는 생태적인 학습권으로서 자유권적 측면을 가짐과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권적 측면을 가진 헌법상의 기본적인 인권이다.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에서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무·무상의 초등교육, 중등

교육의 발전, 고등 교육기회의 개방 등에 대한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제28조), 아동교육의 목표(제29조)에 대한 당사국의 동의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방과후 아동을 위한 교육 역시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에 속한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방과후 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함은 물론, 지도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한국여성개발원, 1996 : pp.17~19)

2-3. 사회적 요구

2-3-1. 취업모의 증가와 자기보호 아동의 문제

한국사회가 산업사회로 진입한 이후 여성노동력에 대한 요구는 초기의 생산직 미혼여성의 노동력에 대한 요구로부터 점차 기혼여성의 취업증가 추세로 이어져 왔다. 기혼여성의 취업은 곧바로 전통적인 가정생활의 변화와 어머니의 자녀양육 역할에 일대 전환을 일으키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취업모의 증가는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며 지내는 아동의 수를 증가시켜 왔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은 결국 아동과 가족을 사회와 단절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94년 현재 47.9%에 이르며, 전체 여성근로자 가운데 기혼여성의 비율은 74.7%에 이른다. 그리고 1995년 현재 취업모를 둔 6세~17세 아동의 수는 1,488,580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가운데 6~12세 아동의 수를 추산하면 대략 868,338명으로 추정된다(한국여성개발원, 1995). 한순옥(1996)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취업모를 둔 아동 중 35~45%의 아동이 방과후 성인의 보호없이 3~7시간 가량을 혼자서 생활하고 있으며, 비취업모의 아동중 76~79%의 아동이 1~3시간 가량을 혼자 보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옥(1995)의 연구에서도 2/3 이상의 아동이 방과후에 3~6시간을 혼자 보내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취업모를 둔 아동의 숫자와 연구결과는 어떤 형태로든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취업모의 증가 속도에 맞추어 자녀양육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적지 않은 아이들이 성인들의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받지 못한 채 버려져 있다. 방과후에 성인보호가 없는 아동을 자기보호 아동(self-care child), 열쇠아동(latchkey child)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학교가 끝난 후 목에 걸고 있던 열쇠로 아파트 문을 열고 부모가 귀가하기전 최소한 2시간 정도를 혼자 있게 되는 아동을 말한다. 이들은 각종 안전사고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가능성이 적지 않으며, 정서적 불안정으로 인한 문

제행동을 보일 수 있다. 김옥천(1994)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기보호 아동은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뇌물, 계책, 권위 의존과 같은 부정적 해결방안을 많이 사용하며, 타인을 고려하지 않는 자기위주의 사고를 함으로써 이기적이고 폐쇄적인 아동으로 양육될 가능성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한명희(1993)의 연구결과는 자기보호 아동은 성인보호 아동에 비해 부모와 상호작용할 시간이 부족하여 고민이나 문제를 의논할 기회를 놓치는 때가 많고, 점심식사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므로 영양과 발육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쉬우며, 학교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형제끼리 싸우는 경우도 빈번하여 교우관계에 있어서도 충돌이 많고, 외톨이가 되는 아동이 많다고 한다. 특히 아동이 '집밖에서' 자기 혼자 지내야 할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하다. 학령기 아동들은 발달상의 왕성한 신체적 활동과 높은 호기심으로 위험한 장난을 치거나, 유괴, 성폭행 등의 사건으로 신체적·정서적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유해한 환경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부정적 행동 유형을 학습하게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가정의 안과 밖에서 자기보호를 함으로써 겪게 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방지할 경우, 정신이상과 범죄로까지 발전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정 밖의 공간에서 건강한 만남이 가능한 방과후 아동지도가 더욱 필요해진다. 부모가 취업을 하든 그렇지 않든, 사실 부모가 집을 비우는 시간이 점차 늘고 있는 요즘, 이에 따른 자기보호 아동이 늘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방과후 아동지도는 모든 계층의 가정에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2-3-2. 현대 가족구조의 변화와 공동체 문화 형성의 중요성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가족구조도 점차 소가족화, 핵가족화되어 가는 경향이 농후하다. 노년층 인구가 자녀로부터 독립해 생활하는 추세가 보편화되어 가고 있으며, 그에 따라 부부와 소수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이 일반화돼 가고 있다. 현대의 소가족화, 핵가족화 현상은 전통적인 가족원의 역할이 와해되고, 가족 구성원의 생활이 개별화되는 부정적 측면을 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들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에 따라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핵가족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확대가족의 아동과 청소년들에 비해 부적응 행동율이 높다거나 정서와 행동상의 문제를 더 많이 나타내고 있음이 동서문화권에서 모두 발견되고 있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황혜정, 1994, Wang et al., 1987, Wilson, 1987.).

현대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개별성과 개성을 중시하는 생활유형과 가치의식은 기실은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한 가정생활 양식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가족과 확

대가족의 전통적 가치, 즉 집단 위주의 가족 규범이나 가족 권위에 대한 충성과는 배치되는 개성화, 개별화의 가치들이 소위 신세대의 가치가 되어가고 있어 가족공동체 의식조차 와해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러한 현대사회와 가족의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사회가 어떠한 사회로 가든지 인간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본주의와 건전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특히 산업사회 이후 발생하는 각종 문제 즉, 교통, 도시 범죄, 정신질환 등의 현대사회 문제의 원인이 전통적 공동생활의 부재에 있다고 보고, 그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공동체 문화 육성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 자아실현, 개성, 개별화, 차별성의 가치가 미래의 보편적 가치가 될 징후가 이미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치들은 사실, 타인들과의 직접적이며 지속적인 융화 관계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가치들이다. 또한 가족원이 소외되고 복잡한 사회에서 핵가족들이 갖는 소외와 고립현상은 역설적이지만 인간 본성-인간화와 소속감에 대한 욕구-을 증폭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치의 실현과 현대인의 인간 본성에 대한 갈망을 충족시키는 현장으로서의 생활공동체가 당연히 필요할 것이다. 공동체의 친밀한 유대관계에서 비롯되는 사랑, 우애, 협동, 인정, 동일시, 참여와 소속감 등 일련의 공동체 가치는 인간 본성자체의 요소들인 동시에, 사회의 통합과 통제의 기능을 수행하여 개인과 사회의 존재 의미를 결정하는 보편적 가치인 것이다(신용하, 1985).

공동체의 특징은 서로 같이 살고, 서로 자세히 알고, 서로 귀속감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동체 생활문화가 현대의 한국사회에 형성되었다고 전혀 볼 수 없다. 새로운 공동체 형성은 커녕 전통적으로 유지되었던 기존의 지역사회, 이웃 공동체마저도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황폐화돼 버렸다. 아무리 사회가 변화하여 개성과 개별화의 가치가 상위 가치로 여겨진다 해도 한 개인의 성장과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정내에서 가족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루어짐은 변하지 않는 사실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개성과 개별화가 추구될수록 개인의 성장과정에서 가족 공동체적 삶의 경험은 더욱 요구될 것이다. 공공체적 삶은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의 요구일 뿐 아니라 가족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우리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건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공동체 문화 육성은 개별 가족구성원간의 유대를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자칫 가족 이기주의로 빠질 수 있는 현대 가족들이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활동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일일 것이다.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서 학령기 아동을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은 아동들 자신의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내면화시키면서, 동시에 아동의 가족과 이웃, 지역사회와의 연결망을 가능하게 하는 훌륭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특히 학령기의 아동들은 성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세상에 대한 해석을 배우는 시기에 있다(Galinsky, 1981). 지역사회 성인들이 제공하는 즐겁고 건전한 방과후 활동을 통하여 어린이들은 가족과 자신이 지역사회와 유리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음을 인식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공동체적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방과후 아동보육의 필요성은 현대 가족의 변화와 그에 따른 아동들의 소외와 고립을 막기 위해서, 나아가 아동을 실제로 돕는 지역사회에 대한 아동의 인식을 건전하게 발달시키기 위해서 더욱 강조될 수 있는 것이다(이옥 외, 1997 : p.34~38).

III. 研究方法 및 節次

1. 조사도구

본 연구를 위한 조사도구는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해서 본 연구에 맞게 연구자가 제작한 질문지였다. 질문지의 내용구성은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아동, 학부모, 교사의 의견조사 내용구성

구 분	조 사 영 역	하 위 영 역
아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머니의 취업여부 · 아동들의 방과후 아동교실 · 방과후 아동교실에 대한 의견참가 의사 · 방과후 아동교실에 대한 의견 	방과후 아동교실의 운영시간 방과후 아동교실에서 하고 싶은 활동
학 부 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 아동지도의 목적 및 교육내용 · 방과후 아동교실 운영장소 · 원하는 방과후 아동교실 유형 및 시간 · 방과후 아동지도비 부담자 · 방과후 아동지도 자원활동 의향 · 방과후 아동교실에 대한 의견 	방과후 아동지도 목적의 초점 방과후 아동지도 목적의 우선순위 방과후 아동지도 교육내용의 우선순위 원하는 유형별 시간 지도비의 학부모 부담 정도 자원활동 영역
교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 아동지도의 목적 및 교육내용 · 방과후 아동교실 운영장소 · 적절한 방과후 아동지도 교사 · 방과후 아동교실에 대한 의견 	방과후 아동지도 목적의 초점 방과후 아동지도 목적의 우선순위 방과후 아동지도 교육내용의 우선순위

2. 조사 대상 선정·표집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도내 초등학교의 아동, 해당 아동의 학부모, 교사였다. 아동의 표집은 5개의 초등학교 중에서 학년별로 각각 1개 학급 총30개 학급의 아동을 무선 비율 표집하였다. 학부모의 표집은 질문지를 해당 아동편으로 가정통신문 형식으로 학부모님께 보내 작성, 담임선생님께 제출하도록 하였다. 교사의 표집은 앞의 5개 초등학교와 그 외의 6개의 초등학교의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 III-2> 전체 조사대상자의 표집규모

(단위 : 명)

구 분	아 동	학 부 모	교 사	합 계
S1 교	201	201	24	426
S2 교	223	223	31	477
N 교	203	203	24	430
I1 교	197	197	18	412
I2 교	245	245	43	533
H1 교	-	-	28	28
H2 교	-	-	10	10
H3 교	-	-	16	16
D 분 교	-	-	3	3
M 교	-	-	10	10
K 교	-	-	14	14
합 계	1069	1069	221	2359

3. 질문지의 회수 및 분석

질문지는 1997년 11월 20일날 배포하여 29일까지 회수했는데, 회수율은 <표 III-3>과 같다.

<표 III-3> 질문지의 회수율

구 분	발 송(명)	회 수(명)	회 수 율(%)
아 동	1069	1019	95.3
학 부 모	1069	719	67.3
교 사	221	158	71.5
합 계	2359	1896	80.4

회수된 질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해 총1,888부가 최종 분석대상이 되었으며, 분석은 SPSS WIN 하위 프로그램을 이용, 전산처리하여 X² 검증분석을 하였다.

IV. 研究結果 및 解析

1. 아 동

1-1. 아동의 일반적 배경

아동의 일반적 배경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1> 아동의 일반적 배경

<단위 : 명(%)>

구 분	취 업 모	비 취 업 모	전 체
1 학 년	59(9.3)	49(16.5)	108(11.6)
2 학 년	113(17.7)	47(15.8)	160(17.1)
3 학 년	123(19.3)	42(14.1)	165(17.7)
4 학 년	116(18.2)	59(19.9)	175(18.7)
5 학 년	110(17.3)	49(16.5)	159(17.0)
6 학 년	116(18.2)	51(17.2)	167(17.9)
합 계	637(68.2)	297(31.8)	934(100.0)

학년별 응답비율은 1학년을 제외하고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의 취업여부별로 보면, 취업모를 둔 아동(68.2%)이 비취업모를 둔 아동(31.8%)보다 높은 응답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1-2. 방과후 아동교실 참가의사

먼저 아동들의 방과후 아동교실 참가의사가 어떤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아동들이 방과후 아동교실에 참가할 의사가 그다지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2>에서 보면, 응답자 전체로 볼 때 응답자의 43.4%가 아동교실에 참가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고, 21.8%는 참가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런데 34.8%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

고 있는데, 이는 부모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려는 아동들의 의존성향 때문으로 보인다.

<표 IV-2> 아동들의 방과후 아동교실 참가의사(학년별)

(단위 : 명(%))

구 분	저학년(1~3)	고학년(4~6)	전 체
있 다	198(42.7)	238(44.0)	436(43.4)
없 다	88(19.0)	131(24.2)	219(21.8)
모르겠다	178(38.4)	172(31.8)	350(34.8)
합 계	464(46.2)	541(53.8)	1005(100.0)

$$X^2=6.35330 \quad df=2 \quad sig=.04173$$

학년별로 보면, 고학년(44.0%)이 저학년(42.7%)보다 방과후 아동교실에 참가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없다'도 고학년(24.2%)이 저학년(19.0%)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모르겠다'는 고학년(31.8%)이 저학년(38.4%)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3> 아동들의 방과후 아동교실 참가의사(학부모의 취업여부별)

(단위 : 명(%))

구 분	취 업 모	비 취 업 모	전 체
있 다	291(45.8)	110(37.7)	401(43.3)
없 다	130(20.5)	74(25.3)	204(22.0)
모르겠다	214(33.7)	108(37.0)	322(34.7)
합 계	635(68.5)	292(31.5)	927(100.0)

$$X^2=5.85281 \quad df=2 \quad sig=.05359$$

학부모의 취업여부별로 보면, <표 IV-3>과 같이 취업모의 아동(45.8%)이 비취업모의 아동(37.7%)보다 아동교실에 참가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없다'는 비취업모의 아동(25.3%)이 취업모의 아동(20.5%)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 '모르겠다'도 비취업모의 아동(37.0%)이 취업모의 아동(33.7%)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취업모의 아동이 비취업모 아동에 비해 방과후 아동교실에 참가할 의사가 높은 것은 아무래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1-3. 방과후 아동교실 운영시간

방과후 아동교실을 몇 시까지 하는 것이 좋겠는가는 질문에 대한 아동들의 의견을 보면 다음 <표 IV-4>와 같다.

<표 IV-4> 방과후 아동교실의 운영시간(학년별)

(단위 : 명(%))

구 분	저학년(1~3)	고학년(4~6)	전 체
오후 3시까지	5(1.7)	9(2.2)	14(2.0)
오후 3:30분까지	20(6.9)	22(5.4)	42(6.0)
오후 4시까지	16(5.5)	25(6.2)	41(5.9)
오후 4:30분까지	169(58.5)	212(52.5)	381(54.8)
오후 5시까지	23(8.0)	74(18.2)	97(14.0)
오후 5:30분까지	10(3.5)	22(5.4)	32(4.6)
오후 6시까지	7(2.4)	22(5.4)	29(4.2)
오후 6:30분까지	7(2.4)	5(1.2)	12(1.7)
오후 7시까지	14(4.8)	9(2.2)	23(3.3)
기 타	18(6.2)	6(1.5)	24(3.5)
합 계	289(41.6)	406(58.4)	695(100.0)

$$X^2=35.88052 \quad df=9 \quad sig=.00004$$

응답자 전체로 볼 때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오후 4시 30분까지'(54.8%)가 좋겠다고 응답하고 있고, 그 다음은 '오후 5시까지'(14.0%)이다. 학년별로 보면, 저학년 아동(58.5%)이 고학년 아동(52.2%)보다 오후 4시 30분까지 하는 게 좋겠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오후 5시까지'는 고학년 아동(18.2%)이 저학년 아동(8.0%)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1-4. 방과후 아동교실에서 하고 싶은 활동

아동들이 방과후 아동교실에서 하고 싶어하는 활동에 대한 의견을 보면 <표 IV-5>와 같다.

<표 IV-5> 방과후 아동교실에서 하고 싶은 활동(학년별)

(단위 : 명(%))

구 분	저학년(1~3)	고학년(4~6)	전 체
숙 제 지 도 받 기	68(18.7)	67(14.9)	135(16.6)
학 습 지 도 받 기	16(4.4)	39(8.6)	55(6.7)
자 율 학 습 지 도 받 기	16(4.4)	45(10.0)	61(7.5)
책 읽 기	112(30.8)	72(16.0)	184(22.6)

구 분	저학년(1~3)	고학년(4~6)	전 체
현 장 견 학	102(28.0)	130(28.8)	232(28.5)
그 립 그 리 기	137(37.6)	102(22.6)	239(29.3)
컴 퓨 터	214(58.8)	347(76.9)	561(68.8)
음 악	57(15.7)	58(12.9)	115(14.1)
영 어	92(25.3)	100(22.2)	192(23.6)
한 문	38(10.4)	41(9.1)	79(9.7)
놀 이 (게 임)	222(61.0)	283(62.7)	505(62.0)
운 동	12(3.3)	36(8.0)	48(5.9)
요 리	-	15(3.3)	15(1.8)
기 타	6(1.6)	17(3.8)	23(2.8)

* 복수응답 수치임

아동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활동은 '컴퓨터 하기'(68.8%)이며, 그 다음으로는 '놀이나 게임'(62.0%), '그림그리기'(29.3%) 순이다. 컴퓨터 하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요즘 컴퓨터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년별로 보면, 고학년 아동(76.9%)이 저학년 아동(58.8%)보다 컴퓨터를 하고 싶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놀이나 게임'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그리기'는 저학년 아동(37.6%)이 고학년 아동(22.6%)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학 부 모

2-1. 학부모의 일반적 배경

학부모의 일반적 배경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6> 학부모의 일반적 배경

(단위 : 명(%))

구 분	취업부모	비취업부모	전 체
1 학 년	58(12.9)	38(17.5)	96(14.4)
2 학 년	75(16.6)	32(14.7)	107(16.0)
3 학 년	69(15.3)	41(18.9)	110(16.5)
4 학 년	82(18.2)	42(19.4)	124(18.6)
5 학 년	91(20.2)	32(14.7)	123(18.4)
6 학 년	76(16.9)	32(14.7)	108(16.2)
합 계	451(67.5)	217(32.5)	668(100.0)

구 분	취업부모	비취업부모	전 체
국 졸	10(2.2)	13(6.1)	23(3.5)
중 졸	38(8.5)	19(8.9)	57(8.6)
고 졸	228(50.9)	116(54.5)	344(52.0)
전문대 졸	55(12.3)	18(8.5)	73(11.0)
대 졸	100(22.3)	44(20.7)	144(21.8)
대학원 졸	16(3.6)	1(0.5)	17(2.6)
기 타	1(0.2)	2(0.9)	3(0.5)
합 계	448(67.8)	213(32.2)	661(100.0)

학년별로 보면, 4학년과 5학년 학부모가 비교적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학부모의 취업여부별로 보면, 취업부모(67.5%)가 비취업부모(32.5%)보다 응답비율이 높다. 학력별로 보면, 고졸 학부모(52.0%)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졸 학부모(21.8.0%), 전문대졸 학부모(11.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2. 방과후 아동 지도목적 및 교육내용

2-2-1. 방과후 아동 지도목적의 초점

방과후 아동 지도목적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견해를 보면 <표 IV-7>과 같다.

<표 IV-7> 방과후 아동 지도목적의 초점(학력별)

구 분	〈단위 : 명(%)〉							전 체
	국 졸	중 졸	고 졸	전문대졸	대 졸	대학원졸	기 타	
사회적·정서적 발달에 초점	15(68.2)	58(92.1)	320(87.7)	67(88.2)	128(86.5)	17(100.0)	3(100.0)	608(87.6)
지적 발달에 초점	7(31.8)	5(7.9)	45(12.3)	9(11.8)	20(13.5)	-	-	86(12.4)
합 계	22(3.2)	63(9.1)	365(52.6)	76(11.0)	148(21.3)	17(2.4)	3(0.4)	694(100.0)

$$X^2=11.82236 \quad df=6 \quad sig=.06605$$

조사대상 학부모의 87.6%가 방과후 아동지도의 목적을 아동의 사회적·정서적 발달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적 발달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응답은 12.4%에 불과하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지적 발달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응답에 있어 국졸의 학부모들(31.8%)이 다른 학력의 학부모들(7.9%~13.5%)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학부모의 지적 열등감이나 원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2-2. 방과후 아동지도 목적의 우선순위

방과후 아동지도 목적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보면 <표 IV-8>과 같다.

<표 IV-8> 방과후 아동지도 목적의 우선순위

(단위 : 명)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가중치 점수
안전한 보호	152	175	316	6	1771
사회적·정서적 발달	397	190	70	—	2298
학업 성취능력 향상	105	285	252	5	1783
*사교육비절감(학원기능을 대신함)	1	—	—	2	6
*질서 및 예절교육	2	—	1	4	14
*재능교육(아동의 소질개발)	1	—	2	1	9
*체력향상	—	—	2	1	5
*독서지도	—	—	1	2	4
*평생교육의 기회부여	—	—	—	2	2
*정신집중교육	—	—	—	1	1

* 응답자들이 추가한 내용임

학부모가 방과후 아동지도의 목적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앞의 방과후 아동지도 목적의 초점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사회적·정서적 발달이다.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학업성취능력 향상, 안전한 보호 순이다. 그 외에 학부모가 추가한 내용에서 질서 및 예절교육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2-2-3. 방과후 아동지도 교육내용의 우선순위

방과후 아동지도의 목적과 관련하여 아동교실에서 다루어져야 할 교육내용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견해를 보면 <표 IV-9>와 같다.

<표 IV-9> 방과후 아동지도 교육내용의 우선순위

(단위 : 명)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가중치 점수
숙 제 지 도	89	63	59	59	722
학 습 지 도	115	93	61	58	919
자 율 학 습 지 도	97	80	76	67	847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가중치 점수
책 읽 기	177	148	93	74	1412
현 장 견 학	43	54	54	67	509
그 림 그 리 기	14	34	48	51	305
컴 퓨 터	53	74	89	83	695
음 악	10	18	47	37	225
영 어	30	55	68	72	493
한 문	13	22	46	41	251
놀 이 (계 임)	32	36	38	51	363
*운 동	2	2	—	—	14
*생 활 지 도	1	1	—	—	7
*인 성 지 도	3	1	—	—	15
*과 학	—	1	—	—	3
*수 영	—	—	1	—	2
*봉 사 활 동	—	—	—	1	1
* NIE 교 육	—	—	—	1	1

* 응답자들이 추가한 내용임

학부모가 방과후 아동교실에서 자녀를 위해 가장 원하는 교육내용은 책읽기이며, 그 다음으로 학습지도, 자율학습지도, 숙제지도를 들고 있다. 학부모들이 책읽기를 통한 사회적·정서적 발달을 우선시하면서도 동시에 학교 공부와 관련한 내용인 학습지도, 숙제지도, 자율학습지도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은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학력이 절대적으로 중시되는 우리 사회의 실상을 말해 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된다.

2-3. 방과후 아동교실 운영장소

학부모가 가장 원하는 방과후 아동교실 운영장소는 <표 IV-10>과 같이 초등학교(73.5%)가 매우 높은 비율로 1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국·공립·민간 보육시설(8.91%), 기타 지역사회시설(7.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10> 방과후 아동교실 운영장소(취업여부별)

(단위 : 명(%))

구 분	취업부모	비취업부모	전 체
초 등 학 교	315(72.1)	162(76.4)	477(73.5)
사 회 복 지 관	31(7.1)	13(6.1)	44(6.8)
종 교 기 관	9(2.1)	6(2.8)	15(2.3)

구 분	취업부모	비취업부모	전 체
국·공립민간보육시설	43(9.8)	15(7.1)	58(8.9)
기타 지역사회시설	38(8.7)	11(5.2)	49(7.6)
기 타	1(0.2)	5(2.4)	6(0.9)
합 계	437(67.3)	212(32.7)	649(100.0)

$$X^2=11.47517 \quad df=5 \quad sig=.04273$$

2-4. 방과후 아동교실 유형 및 시간

2-4-1. 자녀를 위해 원하는 방과후 아동교실 유형

학부모가 가장 원하는 방과후 아동교실 유형은 <표 IV-11>과 같이 '방과후'(수업이 끝난 후)(63.1%)이며, 그 다음이 '방학중'(28.4%)이다. '학교수업 시작 전'(8.5%)은 그다지 원하고 있지 않다.

<표 IV-11> 자녀를 위해 원하는 방과후 아동교실 유형(학년별)

구 분	〈단위 : 명(%)〉		
	저학년학부모(1~3)	고학년학부모(4~6)	전 체
방과후(수업이 끝난 후)	225(69.0)	212(57.8)	437(63.1)
학 교 수 업 시 작 전	23(7.1)	36(9.8)	59(8.5)
방 학 중	78(23.9)	119(32.4)	197(28.4)
합 계	326(47.0)	367(53.0)	693(100.0)

$$X^2=9.39132 \quad df=2 \quad sig=.00913$$

2-4-2. 방과후 아동교실 종료시간

방과후(학교수업이 끝난 후)에 아동교실에 자녀를 보낼 경우 적절한 종료시간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을 보면 <표 IV-12>와 같다.

<표 IV-12> 방과후 아동교실 종료시간(학년별)

구 분	〈단위 : 명(%)〉		
	취업부모	비취업부모	전 체
오 후 4 시 까 지	-	1(0.4)	1(0.2)
오 후 4:30분까지	162(63.8)	142(50.0)	304(56.5)
오 후 5 시 까 지	55(21.7)	79(27.8)	134(24.9)

구 분	취업부모	비취업부모	전 체
오 후 5:30분 까지	21(8.3)	36(12.7)	57(10.6)
오 후 6 시 까 지	6(2.4)	24(8.5)	30(5.6)
기 타	9(3.5)	3(1.1)	12(2.2)
합 계	254(47.2)	284(52.8)	538(100.0)

$$X^2=22.75957 \quad df=5 \quad sig=.00038$$

응답자 전체로 볼 때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오후 4시 30분까지'(56.5%)를 원하고 있고, 다음이 '오후 5시까지'(24.9%)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살펴 본 아동의 견해와 비율상의 차이는 있으나 일치하고 있다.

학년별로 보면, 저학년 학부모(63.8%)가 고학년 학부모(50.0%)보다 오후 4시 30분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오후 5시까지'는 고학년 학부모(27.8%)가 저학년 학부모(21.7%)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13> 방과후 아동교실 종료시간(취업여부별)

(단위 : 명(%))

구 분	취업부모	비취업부모	전 체
오 후 4 시 까 지	-	1(0.6)	1(0.2)
오 후 4:30분 까지	196(57.1)	90(57.0)	286(57.1)
오 후 5 시 까 지	86(25.1)	37(23.4)	123(24.6)
오 후 5:30분 까지	33(9.6)	20(12.7)	53(10.6)
오 후 6 시 까 지	22(6.4)	5(3.2)	27(5.4)
기 타	6(1.7)	5(3.2)	11(2.2)
합 계	343(68.5)	158(31.5)	501(100.0)

$$X^2=6.34167 \quad df=5 \quad sig=.27438$$

취업여부별로 보면, <표 IV-13>과 같이, 오후 4시 30분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응답비율은 취업부모(57.1%)와 비취업부모(57.0%)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 '오후 5시까지'는 취업부모(25.1%)가 비취업부모(23.4%)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2-4-3. 학교수업 시작전 아동교실 시작시간

학교수업 시작전에 아동교실에 아동을 보낼 경우 적절한 시작시간에 대한 의견을 보면 <표 IV-14>와 같다.

<표 IV-14> 학교수업 시작전 아동교실 시작시간(학년별)

(단위 : 명(%))

구 분	저학년학부모(1~3)	고학년학부모(4~6)	전 체
오 전 7 시 부 터	8(11.0)	18(16.1)	26(14.1)
오 전 7:30분부 터	12(16.4)	32(28.6)	44(23.8)
오 전 8 시 부 터	41(56.2)	46(41.4)	87(47.0)
오 전 8:30분부 터	12(16.4)	16(14.3)	28(15.1)
합 계	73(39.5)	112(60.5)	185(100.0)

$$X^2=5.83347 \quad df=3 \quad sig=.12000$$

응답자 전체로 볼 때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오전 8시부터'(47.0%)를 원하고 있고, 다음이 '오전 7시 30분부터'(23.8%)이다. 학년별로 보면, 저학년 학부모(56.2%)가 고학년 학부모(41.4%)보다 오전 8시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오전 7시 30분부터'는 고학년 학부모(28.6%)가 저학년 학부모(16.4%)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15> 학교수업 시작전 아동교실 시작시간(취업여부별)

(단위 : 명(%))

구 분	취업부모	비취업부모	전 체
오 전 7 시 부 터	14(13.2)	11(16.4)	25(14.5)
오 전 7:30분부 터	30(28.3)	13(19.4)	43(24.9)
오 전 8 시 부 터	50(47.2)	29(43.3)	79(45.7)
오 전 8:30분부 터	12(11.3)	14(20.9)	26(15.0)
합 계	106(61.3)	67(38.7)	173(100.0)

$$X^2=4.24066 \quad df=3 \quad sig=.23662$$

취업여부별로 보면, <표 IV-15>와 같이, 취업부모(47.2%)가 비취업부모(43.3%)보다 오전 8시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오전 7시 30분부터'도 취업부모(29.3%)가 비취업부모(19.4%)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2-4-4. 방학중 아동교실 시작 및 끝시간

방학중에 자녀를 아동교실에 보낼 경우 시작시간과 끝시간에 대한 의견을 보면 <표 IV-16>과 같다.

<표 IV-16> 방학중 아동교실 시작 및 끝시간(학년별)

(단위 : 명(%))

구 분		저학년학부모(1~3)	고학년학부모(4~6)	전 체
시 작 시 간	오 전 7 시 부 터	2(0.8)	2(0.7)	4(0.8)
	오 전 7:30분부터	-	4(1.5)	4(0.8)
	오 전 8 시 부 터	11(4.6)	35(12.8)	46(9.0)
	오 전 8:30분부터	21(8.8)	26(9.5)	47(9.2)
	오 전 9 시 부 터	108(45.4)	122(44.5)	230(44.9)
	오 전 9:30분부터	84(35.3)	71(25.9)	155(30.3)
	오 전 10 시 부 터	7(2.9)	4(1.5)	11(2.1)
기 타	5(2.1)	10(3.6)	15(2.9)	
합 계		238(46.5)	274(53.5)	512(100.0)

$$X^2=19.04390 \quad df=7 \quad sig=.00805$$

구 분		저학년학부모(1~3)	고학년학부모(4~6)	전 체
끝 시 간	정 오 까 지	13(7.2)	6(2.8)	19(4.8)
	오 후 1 시 까 지	4(2.2)	4(1.9)	8(2.0)
	오 후 2 시 까 지	6(3.3)	1(0.5)	7(1.8)
	오 후 3 시 까 지	1(0.6)	9(4.2)	10(2.5)
	오 후 4 시 까 지	100(55.2)	132(61.7)	232(58.7)
	오 후 4:30분까지	12(6.6)	22(10.3)	34(8.6)
	오 후 5 시 까 지	21(11.6)	18(8.4)	39(9.9)
	오 후 5:30분까지	9(5.0)	8(3.7)	17(4.3)
	오 후 6 시 까 지	6(3.3)	9(4.2)	15(3.8)
	기 타	9(5.0)	5(2.3)	14(3.5)
합 계		181(45.8)	214(54.2)	395(100.0)

$$X^2=19.31565 \quad df=9 \quad sig=.02264$$

방학중 아동교실의 시작 시간인 경우, 조사대상 학부모의 절반 가까이가 '오전 9시부터'(44.9%)를 원하고 있고, 다음이 '오전 9시 30분부터'(30.3%)이다. 끝나는 시간인 경우는 '오후 5시까지'(58.7%)를 가장 선호하고 있고, 그 다음이 '오후 5시까지'이다.

2-5. 방과후 아동지도비 부담자 및 학부모 부담정도

2-5-1. 지도비 부담자

누가 방과후 아동지도비를 부담해야 하는가는 질문에 대한 의견을 보면 <표 IV-17>과 같다.

<표 IV-17> 방과후 아동지도비 부담자(가구당 월평균 수입별)

(단위 : 명(%))

구 분	100 만원 미만	100~200 만원 미만	200~300 만원 미만	300~400 만원 미만	400~500 만원 미만	500 만원 이상	전 체
국 가	13(14.9)	55(15.2)	16(10.5)	7 (13.7)	—	2(15.4)	93(13.7)
지 방 자 치 단 체	3(3.4)	17(4.7)	9(5.9)	2(3.9)	—	—	31(4.6)
학부모회(학교운영회)	13(14.9)	18(5.0)	15(9.9)	2(3.9)	1(7.1)	—	49(7.2)
해 당 학 부 모	23(26.4)	106(29.3)	50(32.9)	17(33.3)	6(42.9)	10(76.9)	212(31.2)
국가+지방자치단체	10(11.5)	27(7.5)	6(3.9)	3(5.9)	2(14.3)	—	48(7.1)
국가+지방자치단체+학부모회	5(5.7)	18(5.0)	12(7.9)	3(5.9)	—	—	38(5.6)
국가+지방자치단체 +학부모회+해당 학부모	19(21.8)	118(32.6)	43(28.3)	15(29.4)	4(28.6)	1(7.7)	200(29.5)
기 타	1(1.1)	3(0.8)	1(0.7)	2(3.9)	1(7.1)	—	8(1.2)
합 계	87(12.8)	362(53.3)	152(22.4)	51(7.5)	14(2.1)	13(1.9)	679(100.0)

$X^2=52.68626$ $df=35$ $sig=.02788$

응답자 전체로 볼 때 ‘해당 학부모’(31.2%)가 부담해야 한다는 반응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다음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학부모회+해당학부모’(29.5%) 순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부모가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자녀의 교육비 부담은 부모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과 동시에 어느 정도의 외부지원을 바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학부모의 월평균 수입별로 보면, 수입이 높을수록 해당 학부모가 방과후 아동지도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학부모회+해당 학부모’는 불규칙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표 IV-18> 방과후 아동지도비 부담자(취업여부별)

(단위 : 명(%))

구 분	취업부모	비취업부모	전 체
국 가	62(14.3)	23(10.7)	85(13.1)
지 방 자 치 단 체	19(4.4)	8(3.7)	27(4.2)
학부모회(학교운영회)	31(7.1)	14(6.5)	45(6.9)
해 당 학 부 모	131(30.1)	74 (34.6)	205(31.6)
국가+지방자치단체	33(7.6)	15(7.0)	48(7.4)
국가+지방자치단체+학부모회	28(6.4)	11(5.1)	39(6.0)
국가+지방자치단체 +학부모회+해당 학부모	125(28.7)	67(31.3)	192(29.6)
기 타	6(1.4)	2(0.9)	8(1.2)
합 계	435(67.0)	214(33.0)	649(100.0)

$X^2=3.47484$ $df=7$ $sig=.83788$

학부모의 취업여부별로 보면, <표 IV-18>과 같이, 비취업부모(34.6%)가 취업학부모(30.1%)보다 해당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학부모회+해당학부모'도 비취업부모(31.3%)가 취업부모(28.7%)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2-5-2. 지도비의 학부모 부담정도

방과후 아동지도비의 학부모 부담정도에 대한 의견을 보면 <표 IV-19>와 같다.

<표 IV-19> 지도비의 학부모 부담정도(가구당 월평균 수입별)

(단위 : 명(%))

구 분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전 체
2 ~ 3 만 원	58(73.4)	208(65.0)	70(54.3)	24(57.1)	5(41.7)	3(30.0)	368(62.2)
3 ~ 4 만 원	12(15.2)	63(19.7)	22(17.1)	7(16.7)	3(25.0)	4(40.0)	111(18.8)
4 ~ 5 만 원	4(5.1)	29(9.1)	27(20.9)	7(16.7)	4(33.3)	3(30.0)	74(12.5)
5 ~ 6 만 원	-	6(1.9)	4(3.1)	1(2.4)	-	-	11(1.9)
6 ~ 7 만 원	-	1(0.3)	1(0.8)	1(2.4)	-	-	3(0.5)
7 ~ 8 만 원	1(1.3)	2(0.6)	1(0.8)	-	-	-	4(0.7)
8 ~ 9 만 원	-	-	-	1(2.4)	-	-	1(0.2)
9 ~ 10 만 원	-	1(0.3)	-	-	-	-	1(0.2)
기 타	4(5.1)	10(3.1)	4(3.1)	1(2.4)	-	-	19(3.2)
합 계	79(13.3)	320(54.1)	129(21.8)	42(7.1)	12(2.0)	10(1.7)	592(100.0)

$X^2=53.98192$ $df=40$ $sig=.06894$

응답자 전체로 볼 때 '2~3만원'(62.2%)이 좋겠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3~4만원'(18.8%), '4~5만원'(12.5%) 순이다. 월평균 수입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수입이 낮을수록 2~3만원이 좋겠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장 많은 분포비율을 차지하는 300만원 미만의 학부모인 경우는 92.3%~93.8%가 방과후 아동지도비 부담액으로 5만원 이하를 원하고 있는 반면, 비교적 고소득가정이라 할 수 있는 400만원 이상의 학부모인 경우는 100%가 5만원 이하를 원하고 있다.

<표 IV-20> 지도비의 학부모 부담정도(취업여부별)

(단위 : 명(%))

구 분	취업부모	비취업부모	전 체
2 ~ 3 만 원	228(61.8)	127(65.8)	355(63.2)
3 ~ 4 만 원	64(17.3)	39(20.2)	103(18.3)
4 ~ 5 만 원	50(13.6)	17(8.8)	67(11.9)

구 분	취업부모	비취업부모	전 체
5 ~ 6 만 원	9(2.4)	3(1.6)	12(2.1)
6 ~ 7 만 원	2(0.5)	1(0.5)	3(0.5)
7 ~ 8 만 원	3(0.8)	—	3(0.5)
8 ~ 9 만 원	1(0.3)	—	1(0.2)
9 ~ 10 만 원	—	1(0.5)	1(0.2)
기 타	12(3.3)	5(2.6)	17(3.0)
합 계	369(65.7)	193(34.3)	562(100.0)

$$X^2 = 7.93319 \quad df = 8 \quad sig = .44002$$

취업여부별로 보면, <표 IV-20>과 같이 비취업부모(65.8%)가 취업부모(61.8%)보다 2~3만원이 좋겠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3~4만원'도 비취업부모(20.2%)가 취업부모(17.3%)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4~5만원'은 취업부모(13.6%)가 비취업부모(8.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2-6. 학부모의 방과후 아동지도 자원활동 의향 및 영역

2-6-1. 학부모의 학력에 따른 자원활동 의향

학부모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방과후 아동교실이 설치될 경우 자원봉사활동을 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의견을 보면 다음 <표 IV-21>과 같다.

<표 IV-21> 학부모의 학력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의향

(단위 : 명(%))

구 분	국 졸	중 졸	고 졸	전문대졸	대 졸	대학원졸	기 타	전 체
적극적으로 할 의향이 있다	1(4.3)	1(1.6)	3(0.8)	2(2.7)	6(4.1)	—	—	13(1.9)
주어진다면 할 의향이 있다	3(13.0)	3(4.8)	22(6.1)	5(6.7)	5(3.4)	—	—	38(5.5)
역할이 있다면 할 의향이 있다	4(17.4)	13(21.0)	107(29.6)	26(34.7)	58(40.0)	6(37.5)	1(33.3)	215(31.4)
하고싶지만 시간이 없다	10(43.5)	36(58.1)	199(55.1)	39(52.0)	62(42.8)	10(62.5)	2(66.7)	358(52.3)
전혀 할 의향이 없다	2(8.7)	4(6.5)	14(3.9)	1(1.3)	7(4.8)	—	—	28(4.1)
모 르 겠 다	3(13.0)	5(8.1)	16(4.4)	2(2.7)	7(4.8)	—	—	33(4.8)
합 계	23(3.4)	62(9.1)	361(52.7)	75(10.9)	145(21.2)	16(2.3)	3(0.4)	685(100.0)

$$X^2=35.14165 \quad df=30 \quad sig=.23752$$

조사대상 학부모의 절반 정도가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다'(52.3%)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주어진다면', '역할이 있다면' 할 의향이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거의 40%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어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6-2. 학부모의 학력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영역

자원봉사활동을 할 경우 어느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의견을 보면 다음 <표 IV-22>와 같다.

<표 IV-22> 학부모의 학력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영역

(단위 : 명(%))

구 분	국 졸	중 졸	고 졸	전문대졸	대 졸	대학원졸	기 타	전 체
생 활 지 도	2(14.3)	13(40.6)	82(40.6)	13(28.9)	23(26.7)	5(50.0)	1(50.0)	139(35.5)
숙 제 지 도	1(7.1)	4(12.5)	20(9.9)	1(2.2)	6(7.0)	—	—	32(8.2)
자 율 학 습 지 도	3(9.4)	3(20.8)	42(33.3)	15(31.4)	27(20.0)	2(50.0)	1(50.0)	93(23.8)
특별활동지도(음악)	—	1(3.1)	2(1.0)	1(2.2)	4(4.7)	—	—	8(2.0)
특별활동지도(미술)	1(7.1)	—	4(2.0)	2(4.4)	6(7.0)	—	—	13(3.3)
특별활동지도(기타)	3(21.4)	3(9.4)	22(10.9)	9(20.0)	10(11.6)	—	—	47(12.0)
*상 답	—	—	2(1.0)	—	—	—	—	2(0.5)
*인 성 지 도	—	—	—	—	1(1.2)	1(10.0)	—	2(0.5)
*독 서 지 도	1(7.1)	2(6.3)	5(2.5)	—	1(1.2)	—	—	9(2.3)
*운 동 지 도	—	—	2(1.0)	—	—	—	—	2(0.5)
*색 종 이 접 기	—	—	1(0.5)	1(2.2)	—	—	—	2(0.5)
*만 들 기	—	—	—	—	—	1(10.0)	—	1(0.3)
*영 어	—	—	—	—	2(2.3)	—	—	2(0.5)
*성 교 육	—	—	—	—	1(1.2)	—	—	1(0.3)
기 타	3(21.4)	6(18.8)	20(9.9)	3(6.7)	5(5.8)	1(10.0)	—	38(9.7)
합 계	14(3.6)	32(8.2)	202(51.7)	45(11.5)	86(22.0)	10(2.6)	2(0.5)	391(100.

* 응답자들이 작성한 내용임 $X^2=123.62309$ $df=84$ $sig=.00320$

학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영역은 '생활지도'(35.5%)가 가장 높은 반응비율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자율학습 지도'(23.8%), '특별활동 지도(기타)'(12.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비율은 낮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영역을 들고 있다.

3. 교 사

3-1. 교사의 일반적 배경

교사의 일반적 배경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23> 교사의 일반적 배경

<단위 : 명(%)>

구 분	교 사	주 임 교 사	교 감	전 체
남 성	47(35.1)	3(100.0)	6(100.0)	56(39.2)
여 성	87(64.9)	-	-	87(60.8)
합 계	134(93.7)	3(2.1)	6(4.2)	143(100.0)
대 졸	120(95.2)	2(100.0)	5(100.0)	127(95.5)
대학원졸	5(4.0)	-	-	5(3.8)
기 타	1(.8)	-	-	1(.8)
합 계	126(94.7)	2(1.5)	5(3.8)	133(100.0)

직위별로 보면, 일반 교사(93.7%)가 압도적으로 높은 응답비율을 보이고 있다. 성별로 보면, 여성(60.8%)이 남성(39.2%)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학력별로는 대졸(95.5%)이 대부분이다.

3-2. 방과후 아동지도 목적 및 교육내용

3-2-1. 방과후 아동지도 목적의 초점

방과후 아동지도 목적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견해를 보면 <표 IV-24>와 같다.

<표 IV-24> 방과후 아동지도 목적의 초점(직위별)

<단위 : 명(%)>

구 분	교 사	주 임 교 사	교 감	전 체
사회적·정서적 발달에 초점	133(95.7)	2(66.7)	6(100.0)	141(95.3)
지적 발달에 초점	6(4.3)	1(33.3)	-	7(4.7)
합 계	139(93.9)	3(2.0)	6(4.1)	148(100.0)

$$X^2=5.79768 \quad df=2 \quad sig=.05509$$

조사대상 교사의 절대다수가 방과후 아동지도의 목적을 아동의 '사회적·정서적 발달에 초점'(95.3%)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지적 발달에 초점'(4.7%)을 두어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살펴 본 학부모의 의견과 비율상의 차이는 있으나 일치하고 있다.

3-2-2. 방과후 아동지도 목적의 우선순위

방과후 아동지도 목적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보면 <표 IV-25>와 같다.

<표 IV-25> 방과후 아동지도 목적의 우선순위

<단위 : 명>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가중치 점수
안전한 보호	10	46	58	2	296
정서적, 사회적 발달	98	15	5	4	451
학업 성취능력 향상	8	54	51	-	296
*사교육비 절감(학원의 기능을 대신함)	1	-	-	2	6
*재능교육(소질계발)	2	1	1	-	14
*예·체능교육	-	1	-	-	3
*진로지도 및 상담	-	1	-	2	5

* 응답자들이 추가한 내용임

교사들이 방과후 아동지도의 목적으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동의 사회적·정서적 발달을 들고 있는데, 이것은 앞의 학부모의 의견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 다음으로 교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전한 보호와 학업성취능력 향상이 동일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 교사들이 추가한 내용에서 아동의 소질계발 및 재능교육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3-2-3. 방과후 교육내용의 우선순위

방과후 아동지도의 목적과 관련하여 아동교실에서 다루어져야 할 교육내용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견해를 보면 <표 IV-26>과 같다.

<표 IV-26> 방과후 교육내용의 우선순위

<단위 : 명>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가중치 점수
숙 제 지 도	2	5	6	5	38
학 습 지 도	11	3	9	6	77
자 율 학 습 지 도	18	14	10	10	154
책 읽 기	34	24	15	11	249
현 장 견 학	8	8	6	6	74
그 림 그 리 기	6	11	8	15	88
컴 퓨 터	23	16	19	8	186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가중치 점수
음	악	2	15	16	9	94
영	어	8	13	11	12	94
한	문	—	1	7	14	31
놀	이 (게 임)	11	14	13	18	130
*생	활 지 도	1	—	—	—	4
*운	동	—	—	2	—	4
*학	생 취 미 활 동	—	—	—	1	1
기	타	—	—	—	2	2

* 응답자들이 작성한 내용임

교사들이 방과후 아동교실에서 가장 원하는 교육내용은 책읽기인데,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학부모의 견해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 다음으로 교사들이 원하는 교육내용은 그림그리기, 자율학습지도, 놀이나 게임 순이다.

3-3. 방과후 아동교실 운영장소

교사들이 가장 원하는 방과후 아동교실 운영장소는 <표 IV-27>과 같이 ‘초등학교’ (32.5%)이며, 그 다음은 ‘사회복지관’(28.2%), ‘기타지역사회시설’(21.2%) 순이다. 교사들이 초등학교를 1순위로 꼽은 것은 앞의 학부모의 의견과 비율상의 차이는 있으나 일치하는 결과이다.

<표 IV-27> 방과후 아동교실 운영장소(직위별)

<단위 : 명(%)>

구	분	교 사	주 임 교 사	교 감	전 체
초	등 학 교	37(32.7)	—	1(33.3)	38(32.5)
사	회 복 지 관	32(28.3)	—	1(33.3)	33(28.2)
종	교 기 관	1(.9)	—	—	1(.9)
국·공립·민간	보육시설	19(16.8)	1(100.0)	—	20(17.1)
기타	지역사회시설	24(21.2)	—	1(33.3)	25(21.4)
합	계	13(96.6)	1(.9)	3(2.6)	117(100.0)

$$X^2=5.62835 \quad df=8 \quad sig=.68878$$

3-4. 적절한 방과후 아동교실 교사

누가 방과후 아동교실 교사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표 IV-28> 적절한 방과후 아동교실 교사(직위별)

(단위 : 명(%))

구 분	교 사	주 임 교 사	교 감	전 체
초 등 교 사	13(9.5)	2(66.7)	1(20.0)	14(9.7)
방과후 아동지도교육 이수자	83(60.6)	1(33.3)	2(40.0)	87(60.0)
자 원 봉 사 자	30(21.9)	—	2(40.0)	33(22.80)
사 회 복 지 사	3(2.2)	—	—	3(2.1)
보 육 교 사	2(1.5)	—	—	2(1.4)
각 영 역 전 공 자	5(3.6)	—	—	5(3.4)
지 역 사 회 지 도 자	1(.7)	—	—	1(0.7)
합 계	137(94.5)	3(2.1)	5(3.4)	145(100.0)

$$X^2=2.69853 \quad df=12 \quad sig=.99732$$

조사대상 교사의 절반 이상이 적절한 방과후 아동교실 교사로서 '방과후 아동지도교육 이수자'(60.0%)를 꼽고 있고, 다음이 '자원봉사자'(22.8%), '초등교사'(9.7%) 순이다. 예상과는 달리 초등교사의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은 교사들이 학교교육에 전념하기에 바쁘다는 것을 시사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방과후 아동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적합하지 않겠느냐는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V. 綜 合 考 察

본 연구는 제주도내 방과후 아동지도에 대한 인식의 확산을 위해서 문헌연구를 통한 방과후 아동지도의 필요성을 고찰하고, 방과후 아동교실에 대한 아동, 학부모, 교사의 의견조사를 통해 제주도 지역특성에 맞는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첫 번째 연구과제인 방과후 아동지도의 필요성은 이론적 배경에서 아동의 발달심리학적 요구, 아동의 복지권과 교육권, 그리고 사회적 요구와 관련해 논의하였다.

두 번째 연구과제인 방과후 아동교실에 대한 아동, 학부모, 교사의 의견조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의견조사

1-1. 방과후 아동교실 참가의사

조사대상 아동의 43.4%가 아동교실에 참가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21.8%는 없다

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34.8%가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1-2. 방과후 아동교실 운영시간

조사대상 아동 중 절반 이상이 방과후 아동교실 운영시간으로서 '오후 4시 30분까지'(54.8%)가 좋겠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오후 5시까지'(14.0%)였다.

1-3. 방과후 아동교실에서 하고 싶은 활동

아동들이 방과후 아동교실에서 가장 하고 싶어하는 활동은 '컴퓨터 하기'(68.8%)였으며, 그 다음은 '놀이나 게임'(62.0%), '그림그리기'(29.3%) 순이었다.

2. 학부모의 의견조사

2-1. 방과후 아동지도 목적 및 교육내용

— 조사대상 학부모의 87.6%가 방과후 아동지도의 목적을 아동의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12.4%만이 지적 발달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 학부모가 방과후 아동지도의 목적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동의 '사회적·정서적 발달'이었으며, 다음으로 '학업성취 능력향상', '안전한 보호' 순이었다.

— 학부모가 방과후 아동교실에서 자녀를 위해 가장 원하는 교육내용은 '책읽기'였으며, 그 다음은 '학습지도', '자율학습지도', '숙제지도' 순이었다.

2-2. 방과후 아동교실 운영장소

학부모가 가장 원하는 방과후 아동교실 운영장소는 '초등학교'(73.5%)가 매우 높은 비율로 1순위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국·공립·민간보육시설'(8.9.1%), '기타 지역사회시설'(7.6%) 순으로 나타났다.

2-3. 방과후 아동교실 유형 및 시간

— 학부모가 자녀를 위해 가장 원하는 방과후 아동교실 유형은 '방과후'(수업이 끝난 후)(63.1%)였으며, 그 다음이 '방학중'(28.4%)이었다. '학교수업 시작전'(8.5%)은 별로 원하고 있지 않았다.

— 학부모가 가장 원하는 방과후 아동교실 종료시간은 '오후 4시 30분까지'(56.5%)였고, 다음이 '오후 5시까지'(24.9%)였다.

－ 학부모가 가장 바라는 학교수업 시작전 아동교실 시작시간은 ‘오전 8시부터’(47.0%)였고, 다음이 ‘오전 7시 30분부터’(23.8%)였다.

－ 학부모가 가장 바라는 방학중 아동교실의 시작시간은 ‘오전 9시부터’(44.9%)였고, 다음이 ‘오전 9시 30분부터’(30.3%)였다. 그리고 가장 원하는 방학중 아동교실 끝시간은 ‘오후 5시까지’(58.7%)였고, 다음이 ‘오후 5시까지’였다.

2-4. 방과후 아동지도비 부담자 및 학부모의 부담정도

－ 누가 방과후 아동지도비를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을 보면, ‘해당 학부모’(31.2%)가 부담해야 한다는 반응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학부모회+해당 학부모’(29.5%) 순이었다.

－ 학부모의 방과후 아동지도비 부담정도는 ‘2~3만원’(62.2%)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4만원’(18.8%), ‘4~5만원’(12.5%) 순이었다.

2-5. 학부모의 방과후 아동지도 자원봉사활동 의향 및 영역

－ 학부모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방과후 아동교실이 설치될 경우 자원봉사활동을 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조사대상 학부모의 절반 정도가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다’(52.3%)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주어진다면’, ‘역할이 있다면’ 할 의향이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비율도 거의 40%에 가까웠다.

－ 자원봉사활동을 할 경우 학부모가 도와 줄 수 있는 영역은 ‘생활지도’(35.5%)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자율학습지도’(23.8%), ‘특별활동지도(기타)’(12.0%) 순으로 나타났다.

3. 교사의 의견조사

3-1. 방과후 아동지도 목적 및 교육내용

－ 조사대상 교사의 절대 다수인 95.3%가 방과후 아동지도의 목적을 아동의 사회적·정서적 발달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지적 발달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4.7%에 불과했다.

－ 교사들이 방과후 아동지도의 목적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동의 사회적·정서적 발달이었고, 그 다음으로 안전한 보호와 학업성취 능력향상이 동일순위로 나타났다.

－ 교사들이 방과후 아동교실에서 가장 원하는 방과후 교육내용은 책읽기였으며, 그 다음으로 그림그리기, 자율학습지도, 놀이나 게임 순이었다.

3-2. 방과후 아동교실 운영장소

- 교사들이 가장 바라는 방과후 아동교실 운영장소는 '초등학교'(32.5%)였으며, 다음으로 '사회복지관'(28.2%), '기타 지역사회시설'(21.4%) 순이었다.

3-3. 적절한 방과후 아동교실 교사

- 교사들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방과후 아동교실 교사는 '방과후 아동지도교육 이수자'(60.0%)였고, 다음은 '자원봉사자'(22.8%), '초등교사'(9.7%) 순이었다.

4. 결론 및 제언

이상과 같은 방과후 아동교실에 대한 아동, 학부모, 교사의 의견조사 결과에 따라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들의 방과후 아동교실 참가의사가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들이 방과후 아동지도의 개념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도내에서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방과후 아동교실이 운영된 경험¹⁾이 전무하기 때문에 아동들은 방과후 아동교실을 학교교육의 연장 정도로 인식할 수도 있다. 혹은 학원에 가야 하거나, 여타의 이유로 방과후 아동교실에 참가할 생각이 별로 없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방과후 아동교실이 학교교육이나 학원교육과는 분명한 차별성을 갖고, 마음껏 뛰놀며 재미있게 공부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아동들은 적극적으로 방과후 아동교실에 참여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도내 아동들의 방과후 아동교실에 대한 인식의 확산을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방과후 아동교실에서 원하는 활동에 대한 아동, 학부모, 교사의 요구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동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활동은 컴퓨터, 놀이나 게임, 그림그리기, 현장견학 순이었다. 학부모인 경우는 책읽기, 학습지도, 자율학습지도, 숙제지도 순이었다. 교사인 경우는 책읽기, 그림그리기, 자율학습지도, 놀이나 게임 순이었다. 이러한 요구의 차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 개발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테면, 어른들의 시각에서 보면 사소한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는 아동들의 요구를 단순히 무시하여 성인들의 논리대로 강요되는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은 아이들을 보다 행복하게 만들자는 그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그러한 프로그램은 성공적일 수도 없다. 후속연구에서는 아동, 학부모, 교사, 더 나아가 기타 방과후 아동교실과 관련한 사람들의 제요구에 대한 보다 정교한 비교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¹⁾ 도내에서는 현재 남제주군 D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아동지도의 개념에 입각하여 방과후 아동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시범단계이다(유홍옥 외, 1997 : p.114).

셋째, 학부모와 교사 모두가 비율상의 차이는 있으나 방과후 아동교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시설로서 초등학교를 1순위로 꼽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아동지도를 하기에 앞서 몇 가지 선결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교실개방시의 관리의 문제나, 아동보호시의 책임소재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방과후 아동지도비는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나, 학부모들이 책정한 비용이 너무 적다는 점이다. 한 달에 2~3만원이 좋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는데, 이것은 방과후 아동교실이 최소한 하루에 4~5시간 운영된다고 보았을 때 외부의 지원 없이는 제대로 운영되기에 턱없이 부족한 비용이다. 부족한 비용 조달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교사들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방과후 아동지도 교사는 초등학교 교사가 아니라 방과후 아동지도교육 이수자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방과후 아동지도는 그 분야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적절하지 않겠냐는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방과후 아동지도교사의 자격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방과후 아동지도교사로서 가장 적절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방과후 아동지도교사의 자격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조사한 이옥(1995)의 연구에서 어머니들은 초등학교 교사나 별도의 방과후 프로그램 지도교사로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을 가장 선호하며 영·유아보육교사는 제일 낮은 인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연 등(1995)의 연구에서는 학부모들은 방과후 프로그램의 담당자로서 적당한 사람으로서 아동(복지)학 전공자를 가장 우선으로 꼽았고(57.1%), 다음으로 방과후 프로그램 전담교사(16.2%), 초등학교 교사(13.8%), 대학생 이상의 아르바이트 학생(10.1%), 보육교사(2.8%)의 순으로 응답했다. 김영빈(1995)의 연구를 보면, 방과후 아동지도 교사의 전공으로 아동학·유아교육학(59.5%) 전공자를 가장 선호했으며, 다음으로 교육대·사범대(28%) 졸업자를 원했으며, 사회복지학 전공자에 대한 선호는 4.4%에 불과했다. 자격증별에 대한 질문에서도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3%만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각 연구마다 차이를 보이는 것은 조사대상자의 학력이나 경제적, 사회적 수준, 방과후 아동지도에 대한 개념, 자녀들의 학년 등의 차이에 따라 이들이 인식하는 지도교사의 자격 조건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서영숙, 1996, p.159~160).

보건복지부는 방과후 보육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면서 기존 영유아 보육교사들을 4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실시한 후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도록 계획하고 있음을 발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1996). 그밖에 초·중·고 교사와 여성개발원이 개발한 방과후 아동지도사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아동지도사 등 고학력 유휴인력에게 보육교사 양성과정 우선 입교 및 교육기간 단축 등 특례 인정으로 방과후 아동보육교사 자격을 부여하기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법제상 방과후 아동지도교사의 자격에 관한 원칙이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와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강인성(1993), '전인교육과 교육제도-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관계법 검토의 과제-',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전국대회-어린이와 청소년의 법적 권리와 현실, 서울 : 어린이와 청소년 발달을 위한 전국협의회 국제연합아동기금 한국대표부, pp.67~79.
- 김광득(1990), 현대 여가론 -이론과 실제, 서울 : 백산.
- 김영빈(1995), 방과후 탁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연구-국민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욕구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영진(1996),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 모형 토론, 아동연구 10권, 숙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소, pp.221~226.
- 김옥천(1994), 자기보호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균성(1993), 아동복지제도와 아동의 현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전국대회-어린이와 청소년의 법적 권리와 현실, 서울 : 어린이와 청소년 발달을 위한 전국협의회 국제연합아동기금 한국대표부, pp.39~64.
- 보건복지부(1996), 방과후 아동보육사업 활성화 대책.
- 보육교사교육원연합회(1996), 방과후 아동지도, 서울 : 양서원.
- 서영숙(1996), 종합사회복지관과 보육기관에서의 방과후 프로그램, 아동연구 10권, 숙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소, pp.153~214.
- 서영숙, 이남정, 안소영(1997), 방과후 아동지도, 서울 : 양서원.
- 신용하(1985), 공동체 이론, 서울 : 문학과 지성사.
- 안기성(1994), 교육법학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 유홍옥, 하진의(1997),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제주도 지역을 중심으로-, 제주전문대학 논문집 제18집, pp.87~121.
- 이옥(1995), 학령기 아동을 위한 방과후 탁아프로그램 연구, 16(1), 한국아동학회지.
- 이옥, 노성향(1997), 방과후 아동보육론, 서울 : 창지사.
- 이재연, 강성희(1995), 학령기 아동의 자기보호, 안전 실태 및 자기보호에 대한 준비도, 아동연구 8·9권, 숙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소, pp.25~50.
- 한국여성개발원(1994), 방과후 아동지도사 교육프로그램 개발,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여성개발원(1995), 1995 여성통계연보.
- 한국여성개발원(1996),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 개발, '96 연구보고서 pp.200~215.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 한명희(1993), 학령기 아동의 자기보호실태 조사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혜정(1994), 가족구조가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일 연구, 아동학회지, 15(2), pp.195~211.
- Galinsky(1981), *Between Generations : 'The Six Stagen of Parent'*, N. Y. : Time Books.
- Kahn, A. J. & Kamerman S. B.(1976), 'Child Care', *Social Service in the United States : Policies and Programs*, Temple Univ. Press, Philadelphia.
- Todd, C., Albrecht, K. & Coleman, M.(1990), 'School-age child care : A continuum of options', *Journal of Home Economics* 82(1), pp.46~52.
- Wang, Y., Shen, Y., Gu, D., Jia, M., & Zhang, A. L.(1989), 'An epidemiological study of behavior problems in school children in urban areas in Beijing',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0(6), pp.907~912.
- Wilson, M. N. (1989), 'Child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the black extended family', *American Psychologists* 44(2), pp.380~385.